

자폐 아동에 대한 동물매개치료

김옥진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회장
kimoj@wku.ac.kr



공식적으로 자폐성장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약 5,000명 중 1명이 자폐성장장애로 진단받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500명 중 1명이 진단을 받고, 미국에서는 현재 166명 중 1명이 공식적으로 자폐 범주성 장애로 진단 받는다(Chakrabarti & Fomborne, 2001; Strock, 2004). 영국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보고기관은 없지만 최근의 추정치는 170명 중 1명이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는다고 한다(Chakrabarti & Fombonne, 2005, 김상용외, 2009).

동물들은 치료 활동의 매개체로 도입되어 이용되어질 때, 아동 대상자들에 의사 또는 치료사와 서먹함을 푸는 ice-breaker 역할을 한다. 또한 무의식에 깔려있는 감정의 분쟁이나 걱정과 두려움들을 대상 아동들이 털어놓게 하는 촉매체로서 역할을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애완동물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Serpell, 1999). 어린이들은 쉽게 그들의 감정을 동물에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Reichert, 1998). 레빈슨 박사는 자폐 아동과 같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애완동물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애완동물은 어린이에게 비위협적이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며, 무조건적인 집중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들은 동물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와 동물의 이러한 독특한 관계는 어린이가 동물의 중재를 통하여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독려 받을 수 있게 한다(Levison, 1969; Serpell, 1999).

자폐 아동에 대한 동물매개치료와 동물매개활동의 하나로 동물과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동물관리, 먹이주기, 강아지 와 산책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동물매개치료는 참여한 자폐 아동이 프로그

램에 대한 동기부여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게하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서 육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집중력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관심과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며 동물을 통해 아동과 동물 상호간에 교감형성을 할 수 있다(Chandler, 2005). 이와 같이 동물매개치료의 자폐 아동에 대한 놀라운 치료 효과들은 동물과 아동에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에 기인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신속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자폐 아동에 대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와 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엄마, 구루 친구’라는 말을 건넨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 2급(자폐증)인 최모(12)군의 어머니 허모(42)씨는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던 아들을 바꿔 놓은 것은 동물매개치료센터에서 만난 강아지 ‘구루’라고 말했다. 최군은 평소 말을 시켜도 반응이 없고, 엄마를 봐도 웃지 않는 등 사회성이 거의 없었다. 치료센터에서 처음 구루를 만났을 때도 반갑다고 손을 핏는 구루가 무섭다며 과성을 질렀다. 하지만, 2년간 매주 한 번씩 구루를 만나 동물매개심리상담사가 가르치는 대로 발 만지기, 털 쓰다듬기, 먹이 주기, 장애물 넘기 등을 하면서 행동이 바뀌었다. 최군은 요즘 스스로 어른에게 인사를 할 만큼 사회성이 좋아졌다.”

(출처 - 조선일보 헬스조선 2012년 8월 22일 기사)

동물매개치료는 기사와 같이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 사례는 자폐 아동 사회적 상호작용 개선 사례로서 어떤 프로그램 방식으로 자폐아동을 치료하였는지 알 수 있는 연구 사례입니다.

반려견과의 놀이활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목적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연구 대상	시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자폐성 장애아동들 중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3명			
아동의 특성	항목	아동 A	아동 B	아동 C
	생활연령 / 성별	10세 8개월 / 남	9세 1개월 / 남	11세 3개월 / 여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	38.0 중증 자폐	31.0 경증-중간 자폐	31.0 경증-중간 자폐
	사회성숙도검사	SA : 3.88 SQ : 34.3	SA : 4.8 SQ : 54.5	SA : 7.58 SQ : 67.0

본 연구사례에서는 기초선, 중재, 유지단계의 시작과 마무리에서는 인사하기, 반려견에게 물과 간식주기, 함께 산책하기, 추억남기기를 계획하여 기본적 신뢰감을 발달시키고, 건강한 자기인식을 형성하고,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켜, 사회적 친밀감을 촉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의 증가를 기대하였다.

중재 1단계(4~8회기)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활동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중재 2단계(9~14회기)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좀 더 복잡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단계	회기	목표	활동내용	기대효과
기초선	1회기	목표행동 관찰	· 인사 나누기 · 간식 나누어 주기 · 활동사진 찍어주기	· 관계형성 · 친밀감 형성
	2회기	목표행동 관찰	· 서로 자기소개 · 간식 나누어 주기 · 활동사진 찍어주기	· 관계형성 · 안정감 유도
	3회기	목표행동 관찰	· 인사 나누기 · 풍선놀이 · 얼음 팽 놀이 · 활동사진 찍어주기	· 신체접촉을 통한 관계형성 · 친밀감 형성 · 동기유발
중재 1 단계	4회기	반려견에 대해 알아보기	· 어디 좀 살펴보기 · 산책하기 연습	· 인지능력 향상 · 흥미유도
	5회기	친밀감 형성	· 맛있는 것 줄게 · 산책하기 · 내 말대로 해 봐요. · 추억 남기기	· 친숙해지기 · 대·소근육 강화 · 교감 형성
	6회기	친밀감 형성	· 산책하기 · 간식과 물주기 연습 · 빗질하기	· 돌봄 기술 습득 · 인지능력 향상 · 감각자극 활성화
	7회기	상호작용 기술 습득	· 어디 좀 살펴보기 · 발 도장 찍어보기 · '열' 셀 줄 알아	· 인지능력 향상 · 돌봄 기술 습득 · 감각자극 활성화
	8회기	상호작용 기술 습득	· 가져와 보세요. · 맛있는 것 줄게. · 어디 좀 살펴봐주세요.	· 자존감 향상 · 인지능력 향상 · 상호작용 증진
중재 2 단계	9회기	상호작용 기술 습득	· 공놀이해보기 · 내가 부르면 달려와 줄래? · 숫자세기	· 자신감 향상 · 자존감 향상 · 인지능력 향상
	10회기	도와주기	· 반려견 마사지해보기 · 모양 따라 그리기 · 함께 뛰어보기	· 자존감 향상 · 성취감 형성 · 상호작용 증진 · 대·소근육 강화

11회기	친밀감 촉진	· 미이라 놀이하기 · 숫자세기	· 신뢰감 발달 · 만족감 형성
12회기	상호작용 촉진	· 반려견과 함께하는 점토 놀이 · 산책하기	· 감각활성 · 집중력 향상 · 교감 형성
13회기	돌보이주기	· 풍선놀이해보기 · 반려견 꾸며주기 · 장애물 건너기 놀이	· 집중력 향상 · 교감 형성
14회기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 비눗방울 놀이 · 나누어 먹기	· 친밀감 확장 · 자존감 향상 · 신뢰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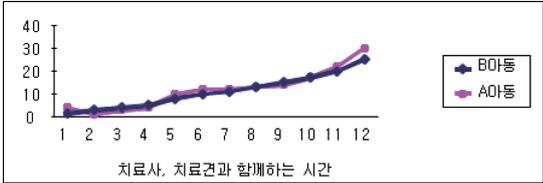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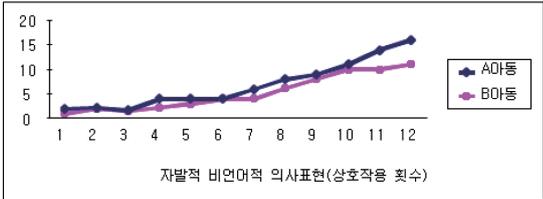
유지	15회기	상호작용하기	· 인사 나누기 · 간식 나누어 주기 · 활동사진 찍어주기	· 상호작용 향상 · 친밀감 형성 · 인지능력 향상
	16회기	상호작용하기	· 자기 소개하기 · 간식 나누어 주기 · 활동사진 찍어주기	· 자신감 향상 · 관계형성 · 인지능력 향상
	17회기	상호작용하기	· 인사 나누기 · 풍선 놀이 · 얼음 팽 놀이 · 활동사진 찍어주기	· 신뢰감 형성 · 관계형성 · 상호작용 향상 · 인지능력 향상
비고	〈모든 회기 시작 및 마무리 활동〉 · 반려견 활동사에게 인사하기(하이 파이브) · 반려견에게 물과 간식주기 · 반려견 활동사와 함께 산책하기 · 반려견 활동사와 함께 기념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연구결과	첫째, 반려견과의 놀이활동 프로그램은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인 '개시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자폐성 장애아동이 반려견과의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만져보거나 접근하는 등 자기의사 표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반려견과의 놀이활동 프로그램은 자폐아동의 사회적인 '반응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한 반응행동은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반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반려견과의 놀이활동 프로그램은 자폐성 장애아동의 '확장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폐아동과 활동사진 찍기-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촉진 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적	자폐성장아동이 동물과의 상호작용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착석하기, 웃는 횟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
연구대상	동물매개치료 중재를 경험하지 않았고 현재 언어치료를 주1회씩 받고 있는 경증자폐아동 2명을 대상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일대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들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 정서, 행동적인 관찰기록을 하였고, 부모면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관찰기록 하였다.
연구결과	<p>1) 동물매개심리상담사, 치료도우미 개와 함께하는 시간 처음 초기에는 아동들은 면담 때와 같이 치료사에게 관심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중재를 들어가면서는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 시작하였다. 그리고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매개심리상담사의 리드를 잘 따라 주었다.</p>  <p>2) 웃는 횟수 웃는다는 것은 상호작용의 시작이므로 이 그래프를 보면 아동들의 회기 중 웃는 횟수가 계속 증가하였다.</p>  <p>3) 자발적 비언어적 의사표현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스스로 치료도우미 개와 다가가 쓰다듬거나 만진 횟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정리 한 결과 치료도우미 개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순차적으로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부모, 형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p>

다음 사례는 자폐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폐 아동 정서 개선 사례이다.



[자폐아동과 놀이 활동]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

위에 사례와 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동물과 상호작용프로그램은 동물관리, 먹이주기, 강아지와 산책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매개치료는 장애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에 매우 긍정적이며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서 육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집중력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관심과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켜준다.

고찰

자폐 아동의 사회적·인지적 결함은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맺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하며(Strock, 2004; Watson 등, 2003), 학령기가 되면 친구가 없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대인관계나 이성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민성길, 2010). 이와 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동물과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동물매개치료는 장애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에 매우 긍정적이며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서 육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집중력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며 관심과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며 동물을 통해 아동과 동물 상호간에 교감형성을 할 수 있다(Chandler, 2005).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한 자폐 아동에 대한 동물매개치료의 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인간과 동물의 연대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친화적이고 효과적

아동심리학자인 보리스 레빈슨 박사가 신경증적인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반려견 ‘징글’을 치료 회기에 참여시킨 것이 대체의학으로서 현대적인 동물매개치료의 효시가 되었다. 레빈슨 박사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수줍은 아동들이 반려견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Fine, 2000)

② 동물보조활동의 오락적인 요소

반려견이 공을 물어오거나 재주를 보여주고 고양이가 깃털 장난감을 쫓아 마루 위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은 아동에게 웃음을 제공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접촉으로 인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즉 반려견이 드러누워서 배를 만져 주기를 바라는 모습 등은 장애아동에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동물을 쓰다듬어주는 일은 장애아동을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반려견이 복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아동에게 이런 훈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촉진시켜줄 수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유아의 사회적 지식, 모방행동, 거울보기, 규칙알기, 놀이활동 증진에 영향을 주었으며(이진숙, 2004), 자폐성 장애아동 부모의 대부분은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발달상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그들의 경험적 스트레스의 일부를 완화해주었다고 보고하였다(Solomon, 2010).

③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하여 접근이 가능

동물매개치료는 장애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에 매우 긍정적이며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서 육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집중력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관심과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며 동물을 통해 아동과 동물 상호간에 교감형성을 할 수 있다(Chandler, 2005). 그리고 학교로 가는 교통수단, 식품점 쇼핑, 의사와의 약속, 휴양 활동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은 반려견과 함께 하면서 쉽게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Burrows 등, 2008; Fine, 2010; Grandin 등, 2010).



[자폐아동과 산책하기 놀이-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



[자폐아동과 물감으로 발 도장 찍기-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